

#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학교적응의 융합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차유미<sup>1</sup>, 차성현<sup>2\*</sup>

<sup>1</sup>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sup>2</sup>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Yu-Mi Cha<sup>1</sup>, Sung-Hyun Cha<sup>2\*</sup>

<sup>1</sup>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학교적응의 융합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2016년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중학교 2학년 2,366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고, 부트스트랩을 적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적합하였으며,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학교적응의 융합적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매개하였다. 즉, 청소년들이 인권존중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인권존중과 자아존중감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인권존중, 자아존중감, 융합, 학교적응, 청소년,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Data came from the Korean Survey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2016 and a total of 2,366 of the 2nd grade students in middle school were employ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was utilized to test the goodness of research model fit and especially the mediating effect was tested by bootstrapping method. Results showed that goodness of model fit was acceptable and self-esteem mediated the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This indicates that the more experiences in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the higher their self-esteem students have, the better school adjustment they acquire.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human rights education for teachers and develop a new educational program that links between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self-esteem.

Key Words : Respect for human rights, Self-esteem, Convergence, School adjustment,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Corresponding Author : Sung-Hyun Cha(sunghyun.cha@gmail.com)

Received September 2, 2019

Revised October 8, 2019

Accepted October 20, 2019

Published October 28, 2019

## 1. 서론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 권리이며,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하면 안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1].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인권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이면서,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구성원이기 때문이다[2]. 학교에서 인권존중 경험은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3].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교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곳이다. 학교를 통해서 부모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유능감과 소속감을 느끼며[4], 미래의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하기도 한다[5]. 그러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면 학교를 불편한 곳으로 여겨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6].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 경험은 교사로부터의 차별과 폭력뿐만 아니라 청소년 간 폭력에 의해서도 발생하는데 따돌림, 욕설,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5,7].

인권관련 경험과 학교적응,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8]를 보면,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존중과 스트레스, 자아개념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9]에서는 인권존중 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낮추고 긍정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권존중이라는 변인은 학교적응의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선행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다[10-12].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긍정적인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13,14]. 청소년기는 자기 평가적인 측면이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높고, 중학생이 되면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거나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낮아지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10]. 특히, 발달 단계상 중학교 시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경험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15]. 신체적, 정신적 폭

력이나 학대 등 학교에서 존중받지 못한 경험, 즉 차별받은 경험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이 어려워진다[15,16]. 반대로 청소년이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을 하는 경우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17]. 요컨대,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은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자아존중감이 손상되지 않고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인권을 존중받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높아진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인권존중과 학교적응의 융합적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 연구의 추론은 인권존중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와 자존감이 높다는 선행연구[3] 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학교적응의 융합적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학교 2학년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학교적응이란 청소년들이 학교활동에 참여하면서 생기는 문제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학교의 요구와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개인과 학교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18]. 가장 바람직한 적응은 청소년이 학교를 둘러싼 환경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안정과 균형을 이루며,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19].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일요인이기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이 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학교적응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가정변인[4,7,12], 학교변인[20,21], 개인변인[10,15]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기에는 부모 존중 경험 등과 같은 가정변인이 학교적응에 주로 영향력을 미쳤다면, 청소년기에는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심리적 개인특성 변인이 학교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22].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인권존중 경험과 자아존중감을 중요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한 기본 지식과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 이면서[1,8], 동시에 교사나 다른 학생들로부터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6,17,20]. 그동안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받은 경험에 대한 연구[6,15,17,20]가 주로 이루어진 반면, 인권을 존중받는 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인권존중 경험의 부정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 경험은 학교적응을 어렵게 하는데 특히 교사로부터 경험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0]. 그런가 하면, 인권존중 경험의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을 통해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키고 학교 내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8].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권존중을 받은 경험을 한 청소년이 학교폭력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할 능력이 높고 방관 및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17].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존중 경험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고 어떤 일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3],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치를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주관적인 기준으로[13] 정의된다. 청소년기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기 시작하는 시기로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에서 관계 맺음을 하는가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23].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을 학교적응의 중요한 영향 변인으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10,12].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상관정도를 메타 분석한 연구 [10]에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적응에서 자아존중감의 영향이 커진다고 하였다. 학교적응의 중단적 변화를 탐색한 연구[12]에서도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의 감소를 더디게 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은 경험을 하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높아진다. 선행연구에서 인권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17],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은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17] 학교적응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모형 및 가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학교적응 간 융합적 관계가 지지되었으므로[8], 청소년의 인권존중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예언변인과 결과변인 간의 강력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언변인이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생성기제로 매개변인을 추가로 가정하여[24] Fig. 1과 같은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예언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만을 설정한 완전매개모형을 경합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1. 청소년의 인권존중,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모형 적합도가 경합모형 적합도보다 더 양호할 것이다.
- 가설2.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학교적응의 융합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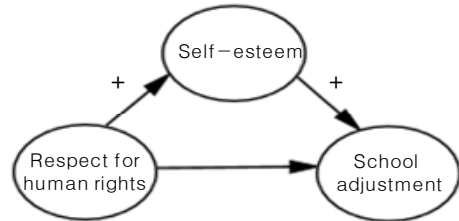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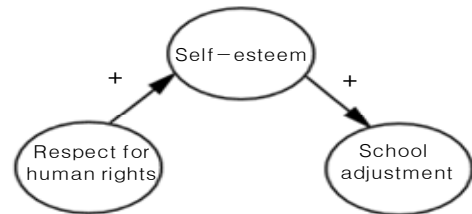


Fig. 2. Competition model

#### 3.2 연구대상

이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6년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25]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

등학교 3학년 사이 9,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횡단조사이다. 조사대상은 층화다단계접락표집 방법에 의해 추출하여 자기기입식 방식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총 2,366명(남학생 1,129명, 여학생 1,237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 3.3 측정도구

#### 3.3.1 학교적응

학교적응 척도는 2016년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25]에서 사용된 것을 활용하였다.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등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묻는 3개 문항(4점 척도)이며,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를 활용한 연구[8]에서는 문항내적 일관성지수(Cronbach's  $\alpha$ )는 .89였고, 이 연구에서는 .65 이다.

#### 3.3.2 인권존중

청소년의 인권존중 척도는 2016년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25]에서 사용된 것을 활용하였다.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우리나라 전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학교”, “가정” 등 5개 항목에 대해 청소년이 얼마나 인권을 존중받고 있는지를 4점 척도로 평가한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을 존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를 활용한 연구[9]에서 문항내적일관성지수(Cronbach's  $\alpha$ )는 .89였고, 이 연구에서는 .81이다.

#### 3.3.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13]는 2016년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25]에서 변안하여 사용된 것을 활용하였다.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등 최근 1년 동안 자신에 대해 묻는 4개 문항(4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였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를 활용한 연구[26]에서 문항내적일관성지수(Cronbach's  $\alpha$ )는 .77이었고, 이 연구에서는 .83이다

### 3.4 자료분석

이 연구의 분석은 IBM SPSS 23을 사용하여 측정변

인들 간 관계 파악을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값을 산출하였고, 자료의 정규분포 가정을 검증하였다.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으면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7].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학교적응의 융합적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AMOS 23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인권존중,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은 하위요인이 없으므로, 항목특기 종류의 하나인 전체 항목을 합하여 하나의 척도로 만드는 전체비총합법(total aggregative approach)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28].

모형적합도는  $\chi^2$  검증, RMSEA, TLI, CFI, SRMR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절대적합도 지수인  $\chi^2$  은 표집크기에 민감하여 모형적합도 비교를 위한  $\chi^2$  차이 검증에만 활용하였다. 모수 불일치성 지수인 RMSEA가 .10이하이거나 비교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가 .90이상[29], SRMR이 .08이하이면[28] 모형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완전매개모형은 부분매개모형에 내재된 모형이므로 두 모형의 비교를 위해  $\chi^2$  차이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chi^2$  차이가 유의하면 부분매개모형(Fig. 1)을 채택하고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모형(Fig. 2)을 채택한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은 정규성 가정의 영향을 덜 받는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의 추정값이 95%신뢰구간 안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30].

## 4. 연구결과

###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측정변인의 기술통계값(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은 Table 1,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한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의 가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27] 해석하였다. 측정변인 간 상관은 Table 2와 같이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결과변인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단일변인이 아니므로, 상관이 높을수록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31] 때문에 공차(tolerance)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산출하였다. 공차가 .875이고

VIF값이 1.143으로, 공차가 1에 근접하고 VIF값이 10 미만이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	Respect for human rights				
	V1	V2	V3	V4	V5
Minimum	1.00	1.00	1.00	1.00	1.00
Maximum	4.00	4.00	4.00	4.00	4.00
Mean	3.38	3.05	3.10	2.86	2.91
Standard deviation	.634	.653	.591	.723	.737
Skewness	-.828	-.726	-.582	-.596	-.699
Kurtosis	1.064	1.616	2.047	.551	.729

Var.	Self-esteem			
	V6	V7	V8	V9
Minimum	1.00	1.00	1.00	1.00
Maximum	4.00	4.00	4.00	4.00
Mean	3.04	2.88	2.84	3.00
Standard deviation	.731	.764	.791	.725
Skewness	-.538	-.233	-.087	-.335
Kurtosis	.273	-.390	-.698	-.160

Var.	School adjustment		
	V10	V11	V12
Minimum	1.00	1.00	1.00
Maximum	4.00	4.00	4.00
Mean	3.14	3.06	2.89
Standard deviation	.560	.652	.755
Skewness	-.344	-.551	-.489
Kurtosis	1.705	1.034	.166

Table 2. Correlations among constructs

Var.	1	2	3
1. Respect human rights	-		
2. Self-esteem	.353**	-	
3. School adjustment	.481**	.424**	-

\*\*p<.01

#### 4.2 구조모형의 검증

Table 3에 관계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chi^2$  값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chi^2$  값은 표집크기에 민감하여 무시하였다. 그 대신 연구모형의 TLI와 CFI,  $> .90$ , RMSEA  $< .10$ , SRMR  $< .08$ 로 경험적 자료에 부합하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비교결과, 두 모형 간의  $\chi^2$  값의 차이가 324.813으로 자유도의 차이가 1일 때 임계값 3.84보다 더 커서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연구모형이

경험적 자료로서는 더 적합한 모형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가설 1이 지지되었다.

Table 3. Model fit

Model fit	$\chi^2$	df	p	TLI	CFI	RMSEA	SRMR
Research model	674.013	51	.000	.922	.940	.072	.047
Competition model	998.826	52	.000	.884	.909	.088	.090
Difference	324.813	1	.000				

연구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채택되었으며, 각 변인 간 경로계수와 구조모형은 Table 4, Fig. 3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인권존중,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의 융합적 관계에 대한 경로계수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인권존중→자아존중감( $\beta = .386, t = 14.117, p < .001$ ), 자아존중감→학교적응( $\beta = .628, t = 13.527, p < .001$ ), 인권존중→학교적응( $\beta = .377, t = 14.825, p < .001$ )의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채택하였다.

Table 4. Path coefficients

Path	B	SE	$\beta$	t
Respect human rights → Self-esteem	.621	.044	.386	14.117***
Self-esteem → School adjustment	.256	.019	.628	13.527***
Respect human rights → School adjustment	.527	.036	.377	14.825***

\*\*\*p<.001

#### 4.3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학교적응의 융합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원자료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2,000개의 표본이 사용되었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인권존중→자아존중감→학교적응의 매개효과( $B = .159, p = .001, 95\% CI = .130 \sim .192$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학교적응의 융합적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2가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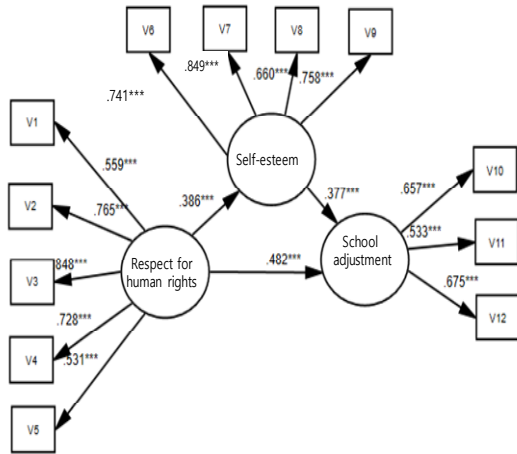


Fig. 3.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nstructs

Table 5. Bootstrapping for the mediating effect test

Path	B	SE	p	CI(95%)	
				Lower	Upper
Respect human rights → Self-esteem → School adjustment	.159	.016	.001	.130	.192

### 5.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권 존중과 학교적응의 융합적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그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25] 자료에서 중학교 2학년 2,366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였다.

측정변인 상관분석 결과, 인권 존중과 학교적응, 자아 존중감과 학교적응, 인권 존중과 자아 존중감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다.  $\chi^2$  차이 검증 결과, 청소년의 인권 존중이 학교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자아 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정한 연구모형이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이 연구모형에 Bootstrapping을 적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인권 존중과 학교적응의 융합적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권 존중의 경험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자아 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 주며, 인권 존중 경험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 존중감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을 하게 되면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다’[2],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을 통해 인권침해 경험을 많이 하면 학교적응이 어려워진다’[2,6,20], ‘인권을 존중받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아진다’[17],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이 만족스럽다’[3]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청소년들이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에 잘 적응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소속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올바른 가치관과 정서를 확립하게 된다[32].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는 학교와 학생의 관계를 향상시키고[21], 이러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인권을 중시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25]. 결국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알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안다[26]. 변화 가능한 개념인 자아 존중감은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을 통해 높아지고[17], 높아진 자아 존중감은 학교적응을 잘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먼저 학교는 인권 존중 교육과 생활지도를 통해 인권을 중시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교육이 의무화 되어 인권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권 중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인권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교사로부터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 경험이 가장 크다고 한 선행연구[20]에 비추어 청소년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사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교사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교사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권교육과 자아 존중감 프로그램을 접목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인권 존중 경험과 학교적응의 매개변인인 자아 존중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인권 존중과 관련된 선행연구[1,8,9,17]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는 2차 자료에서 제공한 인권 존중의 개념 및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향후, 연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인권 존중 개념

및 척도를 개발하여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J. W. Cheon. (2015). A structural analysis on the youth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 Respect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discriminating experiences, and self esteem.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2(4), 1-23.  
UCI : G704-002141.2015.12.4.004
- [2] S. W. Chong. (2013). A study on adolescent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 Focused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Incheon.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6(1), 147-169.  
UCI : G704-SER000002674.2013.6.1.008
- [3] S. W. Chung & S. S. Hyun. (2012). The effect of the experience of human fights of adolescents o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school lif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Youth Protection and Guidance*, 18, 69-89.
- [4] S. K. Un. (2010).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chool adjustment of bicultural children : Focused on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8(1), 37-74.  
UCI: I410-ECN-0102-2012-330-001802446
- [5] J. H. Yoo & H. S. Lee. (2014). A study on the effect factors school class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5(1), 79-101.  
DOI : 10.18612/cnujes.2014.35.1.79
- [6] M. S. Sun. (2017) *An analysis of school factors affecting the school maladjus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7] M. S. Oh (2016). A study on convergence school adjustment and parameter validation of the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5), 71-78.  
DOI : 10.15207/JKCS.2016.7.1.183
- [8] M. J. Lee, I. J. Chung, O. K. Yang & E. K. Bae. (2018). The effects of children's rights-related experiences on school adjustment and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42, 263-286.  
DOI : 10.20993/jSSW.42.12
- [9] M. H. Park & W. S. Choe. (2017). Influence of human rights respect and stress adolescents on their self-concept. *Journal of Studies on Life and Culture*, 44, 109-133.
- [10] J. S. Won & J. S. Kim. (2016). A meta-analysis on the correlation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9), 177-205.  
DOI : 10.21509/KJYS.2016.09.23.9.177
- [11] S. Y. Kim. (2017).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adaptation, self-esteem and self-control of university students on smartphone addiction.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for SMB*, 7(6), 103-111.  
DOI : 10.22156/CS4SMB.2017.7.6.103
- [12] H. J. Lee & Y. J. Cho. (2010). The exploratory study of longitudinal changes and variables predicting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7(2), 253-278.  
UCI : G704-000387.2010.17.2.014
- [13]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4] I. S. Suh, O. S. Cho & S. O. Um. (2019). The effect of results of early youth's self-esteem and depression is life satisfaction : Aggression behavior media effect.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for SMB*, 9(6), 153-163.  
DOI : 10.22156/CS4SMB.2019.9.6.153
- [15] Y. J. Sin & I. S. Choi. (2019). The effect of experienced discrimination on self-esteem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 Moderating effects of perception of human right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3), 1255-1273.  
DOI : 10.2225.1/jlcci.2019.19.3.1255
- [16] D. H. Kim. (2019).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social participation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social competence in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7), 337-386.  
DOI : 10.14400/JDC.2019.17.7.377
- [17] Y. A. Ah. (2016).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 between experience of being respected for one's human rights and bystanders role in school violence of youths. *Journal of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40, 75-98.  
UCI : G704-SER000002276.2016.40.005
- [18] S. R. Kwak. (2006).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6(1), 1-26.  
UCI : G704-001276.2006.16.1.005
- [19] S. J. Song. (2010). *Analysis of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factor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gju.
- [20] Y. S. Lee, H. J. Kim & H. K. Kim. (2015).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maladjustment at school life. *Journal of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2(12), 413-442.  
UCI : G704-000387.2015.22.12.011
- [21] J. H. Park. (2013). Exploring the structural relation of the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Yeolil Education*, 21(1), 101-128.  
UCI : G704-001282.2013.21.1.011

- [22] Y. J. Ha & E. A. Kim. (2019). Convergence effect of horticulture activity program on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apt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6), 409-416. DOI : 10.14400/JDC.2019.17.6.409
- [23] B. K. Park & E. S. Yu. (2011). A study on adolescent's right recogni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8(8), 89-116. UCI : G704-000387.2011.18.8.005
- [24] G. N. Holmbeck. (1997). Toward terminological, conceptual, and statistical clarity in the study of mediators and moderators : examples from the child-clinical and pediatric psychology literatur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4), 18, 559-610. DOI : 10.1037/0022-006x.65.4.599
- [25] Y. J. Kim, S. H. Yoo, M. H. Lee, J. H. Kim & S. J. Kim. (2017). *The Korean survey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2016 : Executive report*. Sejong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26] D. J. Hwang, H. Song & S. H. Kim. (2015). The influence of human right education on adolescent's awareness of human right : Focusing on the mediator effect of self-esteem. *The Journal of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2(10), 77-100. UCI : I410-ECN-0102-2016-330-000235518
- [27] R. B. Kline.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rd ed.)*. New York : Guilford Press.
- [28] B. R. Bae. (2014).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21 : Principles and practice*. Seoul : Chungnam Publishing.
- [29] S. H. Hong.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UCI : I410-ECN-0102-2009-180-000930215
- [30] P. E. Shrout & N. Bolger.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The Journal of Psychological Methods*, 7(4), 433-445. DOI : 10. 1037//1082-989X.7.4.422
- [31] J. F. Hair, W. C. Black, B. J. Babin & R. E. Anderson. (2014).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Harlow : Pearson Education Limited.
- [32] Y. S. Kim. (2010). *The effects of human-rights-friendly classroom culture on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human right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차 유 미(Yu-Mi Cha)

[정회원]



- 2011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교육학학사)
- 2014년 2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6년 2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박사수료)
- 관심분야 : 교육심리, 청소년, 인권
- E-Mail : cym0629@hanmail.net

차 성 현(Sung-Hyun Cha)

[정회원]



- 2000년 8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8년 4월 : 플로리다주립대학교(철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교육행정, 교육정책
- E-Mail : sunghyun.cha@gmail.com